

# 새해부터 휘발유 리터당 100원 오른다...경유는 변동 없어

기재부, 탄력세율 운용방안 발표  
유류세 인하 내년 4월까지 연장  
내달 1일부터 휘발유 99원 인상  
휘발유-경유 간 가격 격차 줄여

정부가 올해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를 새해에도 연장하기로 한 가운데 휘발유 인하 폭을 기존 37%에서 25%로 축소한다. 이에 따라 내년 1월1일부터 휘발유 가격은 리터(ℓ)당 100원 가까이 오르는 대신 경유 인하 폭은 그대로 유지해 휘발유와 경유 간 가격 차가 줄어들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의 '2023년 상반기 개별소비세 등 탄력세율 운용방안'을 발표했다.

올해 말 예정됐던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내년 4월30일까지 4개월 연장한다. 정

부는 국제유가 상승으로 인한 국민 부담을 덜기 위해 지난해 11월12일부터 올해 4월30일까지 유류세를 20% 인하했다.

휘발유 가격이 2000원을 넘어 2500원에 육박하자 5~6월에는 30%, 7월부터는 역대 최대인 37%까지 확대 적용했다.

유류세 인하 조치 시한이 도래하고, 국제유가 하락세로 국내 휘발유 가격이 1500원 안팎까지 떨어지는 등 안정세에 접어들자 연장 여부에 관심이 쏠렸다.

정부는 겨울철 난방 및 전력 수요 증가와 함께 고물가 상황이 지속되자 유류비 부담을

덜기 위해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유종별로 인하 폭 조정에 차등을 뒀다. 국내 휘발유 가격이 경유 등 다른 유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정세를 보이는 점을 고려해 휘발유에 붙는 유류세 인하 폭을 기존 37%에서 25%로 축소한다. 경유와 LPG(액화석유가스)부터는 지금까지 유류세 37% 인하를 유지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로 내년 1월1일부터 휘발유에 붙는 유류세는 ℓ당 615원으로 지금의 516원보다 99원 올라간다. 유류세 인하 전 탄력세율인 ℓ당 820원에 비해 205원 낮은 수준이지만 현재보다 100원 가까이 비싸지는 셈이다.

19일 기준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1542원이다. 이 같은 시세가 연말까지 유지된다면 1월1일 0시부터는 1640원 안팎으로 오를 전망이다.

유류세 인하 폭을 유지하는 경유(ℓ당 212원), LPG부터(ℓ당 73원)는 한 동안 큰 가격 변동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치로 가격 역전 현상이 이어지고 있는 휘발유와 경유 간 가격 격차도 지금의 ℓ당 220원 수준에서 새해부터는 ℓ당 120원 수준까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내 휘발유 가격이 경

유를 비롯한 다른 유종에 비해 안정세를 보이는 점을 고려해 유류세 인하 폭을 일부 축소했다"고 설명했다.

최이슬기자

## 신학기 아이방 책상·수납·침대...한샘 '조이S 2' 출시

자녀방 토털 인테리어...최대 30% 할인 이벤트



한샘이 2023년 신학기를 맞아 학생·자녀방 가구 브랜드 조이의 신제품 '조이S 2'를 출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조이S 2는 코로나19 이후 확산된 디지털 기기 활용 온라인 학습에 최적화된 제품이다. 책상에는 태블릿·노트북을 올려두기 편한 '멀티 거치대'와 모니터를 설치할 수 있는 '와이드 모니터 선반'이 기본으로 설치됐다.

서랍에는 크기별 정리함을 도입해 다양한 학용품들을 손쉽게 정리할 수 있도록 했다.

▲책상 ▲책장 ▲옷장 ▲수납패키지 ▲침대 등을 다양하게 조합해 자녀가 올바른 생활·학습습관을 기를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할 수 있다.

조이S 2 책상은 일자·단독형 외에도 높이·각도 조절이 가능한 '매직데스크', 각도 조절만 가능한 '라이트 매직데스크' 등 4종으로 구성됐다.

조이S가 1200mm 단일 사이즈였던 것과 달리 1400mm 제품도 선택할 수 있다. 이를 모니

터 선반과 2가지 상부장, LED 조명 4종과 조합해 다양한 형태를 완성할 수 있다. 색상은 화이트를 메인으로 그린·핑크·베이지 포인트 컬러를 적용할 수 있다. 또 콘센트가 부착된 멀티선반과 소서랍 등의 소품을 추가할 수 있다.

책상은 중벌로 이동 선반과 고정 선반을 교대로 배치해 높이가 높은 물건도 편안하게 수납할 수 있다. 플랩도어와 책장 2칸을 막아 주는 2단도어, 3칸을 막아주는 3단도어를 부착할 수 있다.

특수장은 자녀들의 생활 패턴을 고려해 멀티수납장 또는 화장대장을 선택할 수 있다. 수납패키지는 옷장·사이드장·슬라이딩장·4단서랍장·이동식 행거 등으로 구성됐다.

조이S 2 침대는 ▲일반형 헤드 ▲멀티수납형 헤드 ▲조명형 헤드 ▲키즈 수납형 침대 등 4종으로 구성됐다. 일반형 헤드는 가격 대비 성능비를 높인 모델이다. 멀티수납형 헤드는 매립 콘센트와 오픈 수납공간이 적용돼 공간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키즈 수납형 침대는 일인원 대용량 벌거 수납공간과 교구수납장, 오픈 수납공간 등 다양한 수납 공간을 갖추고 있다.

한샘은 조이S 2 출시와 함께 2023년 신학기 시즌을 맞아 신학기 이벤트를 전개한다. 조이S 2·아이디S·코타·티오(온라인 전용) 등 제품이 최대 30% 할인 판매된다.

서선욱기자

## 해태제과, 크리스마스 빨라쵸 케이크 출시



해태제과 빨라쵸가 크리스마스를 맞아 케이크를 선보인다. 해태제과는 빨라쵸 크리스마스 에디션 케이크 3종을 출시한다고 밝혔다. 초콜라또, 프라

콜라, 포르마지오 등 인기메뉴를 사용해 만든 제품이다.

신제품은 ▲루돌프초코 ▲리스트리치즈 ▲산타스트로베리 등으로 구성했다.

빨라쵸 젤라또 케이크는 생우유와 천연재료만들고, 케이크 속을 젤라또로 채워 부드럽고 쫄득한 식감을 살렸다.

루돌프초코는 달콤한 초콜라또로 만든 루돌프 모양 케이크다. 리스트리치즈는 월계관 모양 크리스마스 장식 '리스'를 표현한 케이크로 미국산 자연치즈로 만든 포르마지오로 속을 채웠다. 산타스트로베리는 산타가 선물을 나르는 장식이 올라간 케이크로 인기 메뉴인 프라콜라(딸기)로 속을 채웠다.

해태제과 관계자는 "전국 빨라쵸와 지파시 매장은 물론 카카오톡 선물하기를 통해 구입할 수 있다"며 "좋은 재료를 아낌없이 넣은 품격 있는 이태리 정통 젤라또 케이크와 함께 특별한 연말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오유나기자

## 전세가 급락에 집주인 수익 토해내야...보증금 떼일라

최고점 대비 파크리오 5억, 반포자이 7억 내려  
'강동전세' 빨간불...임차권등기명령 역대 최다

고금리에 전세수요가 급감하면서 전세가가 크게 떨어지는 추세다.

상승기 때 보증금을 최대치로 올려받은 경우 집주인이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주지 못할 것이라 우려가 크다. 이에 올해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는 서울지역 세입자가 역대 가장 많았다.

19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 들어 전국 전세가격 누적 하락률은 6.54%를 기록했다. 서울(-7.19%), 수도권(-9.03%), 경기(-9.40%), 인천(-11.91%), 세종(-17.13%), 대구(-12.40%) 등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내림세다.

실거래가를 보면 1~2년 전에 비해 수익 싹 하락한 계약도 적지 않다. 서울 송파구 신천동 파크리오 전용면적 84㎡는 지난 14일 8억원에 전세계약을 체결했다. 2년 전인 2020년 12월 13억원에 계약된 것과 비교하면 5억원이나 하락한 가격이다. 세입자가 2년 계약 후 시세에 맞춰 보증금을 일부 돌려달라거나, 이사를 가겠다고 한다면 집주인이 이 차액을 돌려줘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

다.

서초구 반포동 반포자이 같은 면적은 2020년 12월 19억원, 올해 3월까지만 해도 20억원에 거래되던 것이 지난 16일 12억 4500만원까지 급락했다.

금리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인 만큼 한동안 세입자들이 전세보다는 월세를 선호할 가능성이 높아 전세값은 더 떨어질 전망이다.

대출이자부담도 있지만 월세 선호 현상은 '강동전세'에 대한 우려가 높기 때문이기도 하다. 임대인이 임차인의 보증금을 레버리지 삼아 갚투자를 한 집이라면 최근의 집값·전세값 동반 하락 추세에 세입자의 보증금을 제 때, 온전히 내주기 어려운 상황이 올 수도 있다. 목돈을 맡기느니 보증금을 줄이고 월세를 내는 편이 위험부담이 적다.

실제 올해 들어 서울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는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계약이 만료된 시점에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임차인에게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게 하면서 임차주

택에서 이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임차권등기명령 1~11월 신청 건수는 3719건으로, 12월 통계를 포함하지 않았는데도 역대 최다였던 2012년(3592건)의 기록을 넘어섰다. 하반기로 갈수록 주택시장이 점차 경색됨에 따라 1월 2022건이었던 신청 건수는 6월 311건, 9월 407건, 11월 580건으로 늘어나는 모양새다. 다만 임차권등기명령이 내려져도 전세잔이 보증금에 묶여있는 세입자들은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가기 어렵다는 점이 문제다.

무자본 갚투자 방식으로 문어발식 투자를 감행한 경우 피해자들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수도권에서 1100채가 넘는 빌라와 오피스텔을 임대한 '빌리왕' 김모씨가 갑자기 사망하자 임차인들은 순식간에 전세 사기 피해자가 돼 버렸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세가기 수법은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기 때문에 피해자가 홀로 고통을 감내하라고 할 수는 없다"며 "지역별 전세피해지원센터 설치를 적극 추진하고, 법률자문과 금융지원 프로그램 등 피해회복 지원방안을 맞춤형으로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슬비기자



## 세븐일레븐, 초호화 와인부터 캐릭터 상품까지

편의점 세븐일레븐은 토끼의 해를 맞아 '두 마리 토끼(프리미엄과 가심비)' 콘셉트의 설 선물세트 500여종을 선보인다고 19일 밝혔다.

'프랑스 레어와인 세트(9종)'은 프랑스 5대 샤토 중 하나인 '샤또 오브리옹 2017', 프랑스 생데밀리옹 지역의 최고와인인 '샤또 오존 29017' 등 9가지 희귀와인을 한 자리에서 모두 만날 수 있다. 이 상품은 단 3개 세트만 한정 판매하며 사전 예약을 통해 가까운 세븐일레븐 점포에서 수령할 수 있다. 가격은 2200만원이다. 이 밖에도 고가의 프랑스 특급와인 8종을 다양한 가격대로(11만9000원부터 470만원까지) 만나볼 수 있다.

세븐일레븐을 통한 특별한 프리미엄 상품도 준비했다. 영국 명품 유모차 '에그2'를 50대 한정수량 선보이며, 시중가 대비 약 30% 저렴한 가격(170만원)에 판매한다. 상품 구입시 40만원 상당의 유모차 액세서리 5종을 증정한다. 상품

은 내년 1월 1일부터 세븐일레븐에서 선착순으로 구입할 수 있다.

캐릭터 열풍을 이어갈 상품들도 준비했다. 여성지적 '산리오 보보메타리(2만원)', 산리오 캐릭터즈 무선 키보드&마우스세트(3만원)와 인테리어 소품으로도 완성맞춤인 '짱구는 못말려 일회용 필름카메라(2만 8000원)', '윈딩이 목도리무드등(2만2000원)' 등 짱구 캐릭터 상품 9종까지 다양한 소비자의 가심비를 겨냥했다.

골프인구 증가와 함께 카카오펀드 상품도 선보인다. '카카오펀드 골프 라인세트(9만9000원)', '카카오펀드 드라이버커버(5만7000원)' 등 골프용품 9종도 만나 볼 수 있다. 또한, '구찌', '프라다', '버버리', '생로랑' 등 유명 명품브랜드의 지갑과 가방, 스카프 등도 다양하게 준비해 소비자들의 선택의 폭을 넓혔다.

뉴스